

김종인 “野 후보단일화 1주일이면 충분…안철수, 몸달아”

“安, 후보 되려 계속 몸달아…입당 상상도 안돼”
“정강정책 바뀌도 변화 미진…과거 돌아하면 자멸”
“文, 야당과 소통 생각 없어 보여…영수회담 글썽”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서두르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경선 시간표에 맞춰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야권후보 단일화는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야권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오픈 경선’ 제안은 물론 실무협상을 서두르자는 안 대표의 요구를 일거에 거절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한 입장 등 4·7보궐 선거는 물론 당 혁신 문제,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두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며,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를 말씀드린다”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실질적으로 성공한 정책이 거의 없다. 이를 유권자가

분명히 판단할 것이니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서두르자는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단일화도 우리 후보가 정해져야 하지 한쪽에서만 단일화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달아 있는 걸 보면 안타깝다”라고 안 대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입당 제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거라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재 정해져 있는 후보 외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우리나라 지도자감으로 1970년대 이후 출생하고 경제지식을 갖춘 분이 나타났으면 하는 건 내 개인 희망사항이고, 현재까지 찾을 길이 없고 스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

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새 인물)과 연 나올 수 있을지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두 분 다 지난번에도 시장후보로 나와서 경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중도층을 겨냥하지 않고 보수에 편향된 시각으로 선거에 임하는 데 대해선 “후보들이 각자 당선 목표로 하니 유권자들 정서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선거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들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총선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에 떨어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과 지난 7개월간 비대위원장으로서 바라본 당의 모습을 평가했다. 그는 “서울·부산 보궐 선거 이후 더

이상 정치권에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4월이후에 내가 당을 떠나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새로 바꾼 정강정책이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겠나.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는 일은 자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당은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 정강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의원들이 입법활동으로 보여줬

면 당이 변화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투영됐을텐데 (원내) 수적 열세 때문에 (변화가) 잘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강정책을 변경해놨으면 당 소속 분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모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선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야권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소통이나 협치에 기울어져 있을 때 대화도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대통령에 소통하자고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 “영수 회담을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외하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로 법사위 불참한 국민의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공동취재사진)

與 ‘상생연대3법’ 의총…이낙연 “정무적 판단 경시할 수 없어”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집중 논의한다. ‘상생연대 3법’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으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종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오늘 지혜로운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연대 3법에 대해 기재부가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

색을 표시하고, 재계도 이익공유제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강조한 것은 법 통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히 방역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의원총회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 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법관 탄핵’ 보고,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제 보고,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대책 촉구

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전문취업(C-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나 예상보다 전환률이 매우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 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소 의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있다며,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